

이원준국어연구소

• 국어 영역 •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18번 문제는 출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칼럼 참고)

[ 화법 ]

[1~3] 토론 : 미술관 문제의 해결 방안

1. [출제의도] 발화 내용에 대한 설명 (T3)

- ① 문제의 원인을 말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남은 공간과 협소한 건물이라는 미술관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현재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술관을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원 2가 제시한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위원 1의 의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전에 제시했던 본인의 의견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
- ④ 위원 2가 제시한 다양한 프로그램, 위원 3이 제시한 전시료와 관람료 인하의 방안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위원 3이 제시한 ○○ 문화 재단에서의 지원으로 인한 알차고 자주 열리는 전시회, 관람객 증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질문의 의도 확인하기 (T3)

- ① ㉠ 원인 및 해결 방안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 순서를 바꾸기 위한 질문과는 거리가 있다. ㉡ 토의 참여자의 궁금증 해소보다는 토의 참여자가 발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
- ② ㉠ 토의의 목적이 원인과 해결 방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진행 순서대로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굳이 목적을 환기시키기 위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 해당 질문의 앞부분에서 특별히 의견 대립이 나타난 부분은 없었으므로 대립의 조정을 위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 원인 및 해결 방안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원인에 대한 토론 후 해결방안으로 넘어가는 질문이므로 진행 순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 ㉡ 토의 참여자가 했던 발언의 내용인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 앞서의 원인에 이어 해결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자 던진 질문이다. 토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 토의 참여자 간 발언 순서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⑤ ㉠ 앞에서는 원인이,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순서이므로 추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앞선 토의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토의의 국면 전환을 위한 질문으로 보기에 거리가 있다.

3.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내용 중 ○○ 문화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업들이다. 시 외곽으로 미술관을 이전하자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예산 부족보다는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있었던 해결방안에 해당한다.
- ② 예산이 부족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던 내용 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강좌 개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 문화 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면 미술 강좌 개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청소년 미술 대회 역시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문화 재단의 지원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전시료와 관람료 인하도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을 통하여 진

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 ⑤ [E]의 내용을 통하여 기대효과를 알 수 있다. 이에 작지만 알찬 전시회가 자주 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대 효과에 전시회 개최 횟수의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4~5] 발표 : 미생물 연료 전지

4.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T2)

- ① 발표 처음 부분에서 화면에 폐수 속의 미생물의 모습을 촬영하여 확대한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 ② 환경 공학 용어 사전에 제시된 '유기성 폐수'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사전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연구 논문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유기성 폐수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9배 많을 수 있다는 논문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은 선진국의 사례와는 다른 내용의 논문이다.
- ④ 시각 자료를 통하여 산화 전극, 환원 전극 등을 보여주면서 미생물 연료 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연구 현황과 앞으로 상용화될 것이라는 연구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듣기 활동에 대한 이해 (T4)

- ① ㉠의 내용은 발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면서 정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② 발표 전에 가졌던 의문으로 가까운 시기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발표를 정리한 내용에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중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③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발표를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발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고서 과제를 작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과제 해결에 들은 내용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⑤ 배경지식인 메탄가스와의 유사한 점을 찾아냈으므로 들은 내용과 배경 지식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작문 ]

[6~8]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

6.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초고 첫 문단에는 전자 상거래 이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과 전자 상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의 내용은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원인에 대해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전자 상거래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것, 다른 물품을 받는 것, 제때 배송 받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청소년의 안전한 전자 상거래 결제 방법은 초고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초고의 [A]부분에 학교와 청소년 개인이 어떻게 전자 상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 활용하기 (T5)

- ① 이용 품목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다양화하는 것이 [A]의 주장을 보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제시된 (가)와 (나)가 전자 상거래 피해 대응 방안의 기대 효과와 연관된다고 보기에 거리가 있다.
- ③ 피해 발생 품목의 순위와 전자 상거래 주요 거래 품목의 자료와 피해 내용 신고 이유 사이에는 명시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
- ④ (가), (나)의 자료에서 2차 피해의 내용을 찾을 수도 없고, [A] 부분에도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전자 상거래 주요 이용 품목 중 도서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이 모두 피해 발생 품목의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A]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T5)

- ①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동참 촉구, '하지 않을까?'라는 설의적 표현이 모두 조건에 부합한다.
- ② 전자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미래에 청소년이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고민을 함께 하자는 측면에서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으나,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 전망이 나타나 있지 않고,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 전망과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이것 역시 이용 전망과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T2)

- ① 표절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쓰기 윤리를 준수하겠다는 결심만 나와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국어 수행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성찰하고 있다.
- ④ 개인적 깨달음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지역 사회 차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은 없다.
- ⑤ 쓰기 윤리를 소재로 하고는 있으나, 표절의 개념, 실태, 문제점, 해결 정책 순으로 내용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과 자신의 깨달음을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쓰기(T1)

- ① '결코'는 뒤에 부정적인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다. 그러나 부정적인 표현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인 양'이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 '마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의 앞 문장과 다음 문장 모두 표절의 반복으로 인한 문제를 말하고 있으므로, 역접을 의미하는 '하지만'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자료를 인용할 때 밝혀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다.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출처를' 정도의 표현이 ㉠에 적절하다.
- ④ '짜깁기'는 '짜깁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짜깁기'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은 '짜깁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쓰기 윤리에 대한 글의 주제와 성찰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이 문장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문법 ]

11. [출제의도] 명사형 접사와 어미의 사례(T5)

- ㉠ : 부사어 '홀로'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살기'는 서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 사례이다.
  - ㉡ : 부사어 '충분히'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형은 충분히 잤다'의 종속절을 상징해볼 수 있다. 즉 '잠'은 서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 사례이다.
  - ㉢ : '시원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얼음'이 서술의 기능을 수행할 종속절을 상징하기도 어렵다. ㉢의 사례이다.
  - ㉣ : '건전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과 마찬가지로 종속절을 상징하기도 어렵다. ㉣의 사례이다.
  - ㉤ : 부사어 '매우'의 수식을 받으며, '이곳은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의 종속절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 사례이다.
- 정답 : ④

12. [출제의도] 의미에 따른 서술어의 자릿수(T4)

- ① 주어진 예문에서 '바람 때문에'와 '다시'라는 부사어가 모두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② '이 한 구절로'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는 유지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살았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③ 만약 '벼슬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면, 주어진 의미가 아닌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의 자동사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목적어는 생략할 수 없다. 다른 부사어의 존재 유무가 서술어의 의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④ '농다'는 타동사로, 행위의 대상(목적어)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사어 '잠시'는 생략 가능하다.
- ⑤ 만약 '책상 위에'라는 부사어가 생략되면, 주어진 의미가 아닌 '손으로 무엇을 쥐거나 잡거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거나 힘을 빼서 잡고 있던 물건이 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정한 곳에'라는 의미가 더해지기 위해선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T1)

- ① '껍질째'는 '껍질'이라는 명사에 '-째'라는 접사가 붙어 '껍질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쓰였다. '채'와 '째'는 의존명사이므로 관형어와 결합되지 명사와 바로 결합할 순 없다.
- ② '앉아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채'로 쓰여야 한다..

- ③ '뚝뚝한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로 쓰여야 한다.
- ④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로 쓰여야 한다.
- ⑤ '죽은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로 쓰여야 한다.

14.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T1)

- ① 15세기 국어의 용언 어간 '알-'의 양성 모음에 양성 모음 어미 '-아'가 결합했고, 현대 국어 또한 용언 어간 '알-'에 양성 모음에 어미 '-아'가 결합되었다. 그러므로 모음 조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②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용언 어간 '먹-'의 음성 모음에 어미 '-어'가 결합되었다. 모두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15세기 국어에서는 '시오-'의 양성 모음에 어미 '-아'가 선택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깨우-'의 음성 모음에 어미 '-어'가 선택되었다. 비록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변화하였지만, 결합되는 어미 또한 이에 맞추어 선택되었으므로, 모음 조화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15세기 국어의 용언 어간 '쓰-', 현대 국어의 '쓰-' 모두 끝 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동시에 어미 '-어'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음 조화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15세기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잘 이루어 졌지만, 현대 국어의 '가득하여'는 어간 '가득하-'의 양성모음에 음성 모음인 '-어'가 결합하고 있으므로,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를 말하는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 이해하기(T4)

- ① '겨슬'의 '겨'와 'ㅡ'는 음성 모음에 해당하고, '허'의 'ㅡ'는 양성 모음이다. 따라서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오술'은 체언 '웃'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체언 '죽'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다. '오술'은 양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므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허더라'에서 '더-'가 양성 모음을 지닌 '허-' 뒤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조사 '와'와 '파'의 모음은 'ㅏ'로 동일하므로 모음 조화가 적용되는 이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17세기에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초와'와 '파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 ⑤ '느물'과 '느물'이 현대어 풀이가 '나물'로 동일한 것을 볼 때, '느물'의 둘째 음절 중성 'ㅡ'가 'ㅡ'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독서 - 경제학 ]

[16~20] 이부가격설정

	완전시장	독점시장	
		~이부가격	이부가격
생산량	$Q_c$	$Q_m$	$Q_c$
가격	$P_c$	$P_m$	$P_c$

독점 시장에서 이부가격 적용은 생산량을 완전시장처럼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독점 시장에서 이부가격을 적용하면 소비자 잉여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이윤은 증가하게 된다.

16.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계구성 (T1)

- ① 첫 문단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이부가격설정은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후, 그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 ③ 지문의 ㉠ 부분에 이부가격설정이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이부가격 설정 시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지문의 ㉡ 아래에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독점 시장의 경우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점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된다.

17.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 ① 이는 지문에 제시된 이부가격설정의 설명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회원)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용하는 양(골프를 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므로 이부가격설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② 이는 수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을 할인해주는 판매 전략으로

- 이부가격설정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③ 이는 서로 다른 상품을 한 데 묶어서 파는 전략으로 이부가격설정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④ 이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게 부과하는 가격 차별 전략으로 이부가격설정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⑤ 이는 수돗물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초과하는 소비량에는 이윤 없이 생산 원가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부가격설정의 사례로 볼 수 없다.

18.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해설 뒤의 칼럼을 참고해 주십시오)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E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지문에서 언급한 대로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독점생산자의 생산자 잉여는 최대 baE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 ② 현재 통화로는 P이고, 통신사가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가격이 P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 ③ 수요곡선을 살펴보면, Q1의 통화량에서 P보다 높은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④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⑤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9.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① 독점 시장의 사회적 손실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총잉여가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점 시장의 사회적 손실 보완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사회의 총잉여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이부가격설정시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증가하게 된다.
- ③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의 잉여를 흡수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이득이 생산자 수입보다 커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다.
- ④ 생산량은 증가하므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⑤ 생산량은 증가하며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도 증가한다.

20. [출제의도] 어휘군 확인(T1)

- ① '감정하다'는 사물의 특성이나 좋고 나쁨 등을 관정한다는 것으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② '배정하다'는 나누어서 정한다는 의미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③ '시정하다'는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옳게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④ '책정하다'는 기준에 따라 값이나 등수 같은 것을 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⑤ '제정하다'는 법이나 규정, 제도 같은 것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문학 - 고전시가, 현대수필 ]

[21 ~ 23] (갈래 복합) (가)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나) 이태준, 「고완」

21.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와 관점 파악하기(T3)

-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의 감정은 두 작품 모두 찾아보기 어렵다.
- ② (가)에서는 <제6수>의 '세정이 하 수상하니 나(입암)를 본들 반길 것인가?'에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고, (나)에서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에서 당대 인쇄 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산 도쿄 물 도쿄 골에 삼긴 대로 늘그리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의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나)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완성하는 자신의 현재 취미를 담담히 진술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④ 두 작품 모두 초월적 세계에 대한 언급도, 그러한 지향 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 화자와 작가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에서 부제하는 '아버지'의 존재가 나타나 있긴 하지만 글의 주된 대상이라 할 수 없고, 정작 '고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화자가 발견한 조선의 공예품들이다. 즉 존재하고 있고 이미 만난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가)에서의 시적 대상인 바위 또한 존재하고 있고 이미 만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자료를 통한 시의 이해(T5)

- ① 신령스런 사람들도 곳곳이 서기 어려운데 바위는 오랜 세월 그런 자태를 유지하고 있으니, 바위는 단순히 유정한 것을 넘어

-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사람이 바위의 불변함을 닮을 수 있다면 대장부일 것이라는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③ 바위는 비록 말 한마디 없는 존재지만, 화자는 '고모진태'의 품성을 가진 바위를 벗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바위를 벗 삼았으니 세상 속의 익자삼우(益者三友, 정직한 이·성실한 이·박식한 이)를 굳이 사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 ④ '탁연직립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에서 바위의 본받을만한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진다는 것은,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적 특성을 지닌 인격체의 자연(바위)에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의 자연(산과 물)이 더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삼긴 대로 늘그리라'는 태도의 화자가 세속으로 나아가 세속을 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3.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 파악하기(T3)

- ① 저자는 연적을 앞두고는 옷깃을 여미고 입장을 맞본다.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 없다'는 진술에서, '연적'은 아버님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대성임을 알 수 있다.
- ② (중략) 이후의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라는 언급에서 옛 사람들의 흔적이 담겨 있기에 저자가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해서 손톱 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는 표현에서 보듯, 저자는 외국의 공예품들에 대해 그 매력에 '생활의 자취', 즉 약간의 변화조차 포용하지 못하고 퇴색되고 만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의 공예품이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는 선지의 이해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저자는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저자는 '대해보각사의 「서장」'을 읽고 난 뒤, 찬찬히 들여다보며 오랜 시간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태고연한 표지',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 '칼을 갈아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의 표현을 사용하여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 독서 - 과학 ]

[24~29] 가법 혼합과 감법 혼합

가법 혼합		감법 혼합	
원인	결과	원인	결과
혼합↑	채도↓	혼합↑	명도↓
혼합↓	채도↑	혼합↓	명도↑

24.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계구성 (T1)

- ① 색을 혼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가진 장단점을 평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의 한계를 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미술사적 흐름에 영향을 미친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 ③ 색광과 색료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을 뿐 두 유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밝힌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가법 혼합과 감법 혼합이라는 색의 혼합에 관한 원리를 바탕으로 색을 증시킨 유파인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계구성 (T1)

- ① 색광의 3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이고, 그 보색은 청록, 자홍, 노랑이다. 색광 3원색의 보색들은 색료의 3원색이 된다.
- ② 색 삼각형에서 각 변의 정중앙에는 맞은 편 꼭짓점에 있는 색의 보색이 나타난다. 각 꼭짓점의 색이 빨강, 초록, 파랑에 해당하므로 변의 정중앙에는 그 보색인 청록, 자홍, 노랑이 나타날 것이다.
- ③ 우리 눈에 비치는 색은 가시광선 중 해당 물체가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파장이다.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 ④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섞는 것은 감법 혼합에 해당한다. 감법 혼합으로 만들어진 색은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덧붙여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감법 혼합하면 검정이 된다.
- ⑤ r, g, b의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따라서 두 색의 비율이 0이라면 나머지 한 가지 색의 비율이 1이 되고, 이는 원색임을 의미한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 주석에 채도는 원색에 가까울수록 높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섞었을 때보다 원색일 때 채도가 더 높다.

26.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 ① A필터는 400nm~500nm 파장의 파랑과 500nm ~ 600nm 파장의 초록은 투과하나 600nm ~ 700nm의 빨강은 투과하지 못하므로 청록 필터, B필터는 파랑만 투과하지 못하므로 노랑 필터에 해당한다. 청록 필터를 통과한 백색광이 노랑 필터까지 통과하면 스크린에는 초록이 나타나게 된다.
- ② 백색광을 필터A에 투과시키면 투과하는 색광은 파랑과 초록이므로 스크린에는 두 색광이 청록이 나타나며, 필터B에 투과시키면 초록과 빨강이 투과되므로 스크린에는 이 두 색광이 혼합된 노랑이 나타난다.
- ③ 여러 필터에 연이어 투과시키는 것이므로 감법 혼합에 해당한다. ①에서 A와 B에 연이어 투과시키면 초록이 나타난다. 그 초록을 자홍 필터에 투과시키면 두 색은 보색 관계에 해당하므로 검정이 나타난다.
- ④ ①에서 A-B의 순서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나타났다. 반대로 B-A의 순서로 투과시킨다고 하면, B에서는 파랑이, A에서는 빨강이 막히고, 결국 스크린에는 초록이 나타날 것이다. 순서를 바꾸더라도 색이 달라지지 않는다.
- ⑤ 명도는 광량에 따라 결정된다. 필터 A의 투과율이 50%로 낮아지면, 투과하는 광량이 낮아지므로 명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

27.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① r, g, b의 합은 1이 된다. 따라서 세 비율 모두 0이 될 수는 없다.
- ② ㉔와 ㉕를 혼합하면 두 점의 중간에 해당하는 색이 나타날 것이다. 채도는 원색에 가까울수록 높으므로 원색에 해당하는 꼭짓점에 더 가까이 있는 ㉕의 채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 ③ 파랑의 비율은 원점에 가까울수록 더 높다. ㉔보다는 ㉕가 원점에 가까우므로 파랑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치로 분석하면 ㉕는 파랑의 비율이 0.4, ㉔는 파랑의 비율이 0.2이다.
- ④ ㉕, ㉔의 광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비율의 합은 여전히 1이므로 색 삼각형에서 혼합 색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 ⑤ 꼭짓점과 ㉔를 통과하여 그 선이 변과 만나는 점에서는 꼭짓점 색의 보색이 나타난다. g의 비율이 1인 꼭짓점에서는 초록의 원색이 나타나므로 맞은편 변에서는 초록의 보색인 자홍이 나타날 것이다.

28.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 ① ㉔의 경우 가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보색이 혼합되어 오히려 흐릿하게 나타난다고 제시되어 있다. 채도는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정도이므로 가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채도가 낮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무수히 많은 원색 점들을 병치한 것은 시냐크가 ㉔를 그리면서 사용한 기법에 해당한다.
- ③ ㉔에서 시냐크는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여 대비 효과로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였고, ㉕에서 고희는 파란 하늘과 노란 별, 초록 나뭇잎과 자홍 테라스 등 보색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선명히 드러내었다.
- ④ ㉔와 달리 ㉕는 아침 안개 속의 태양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화폭에 담으려 하였다.
- ⑤ 시냐크는 ㉔에서 무수히 많은 원색 점들을 병치하여 중간색을 표현하였다. ㉕에서 모네가 그런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 [출제의도] 어휘군 확인 (T1)

- ① 문맥상 시도는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계획이나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문맥상 방출은 프로젝터가 백색광을 내보낸다는 의미이므로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문맥상 조절은 r, g, b의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 ④ 문맥상 예측은 혼합 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미리 헤아릴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해당 지문에서 인접은 두 색이 서로 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문학 - 현대소설 ]

[30~32] 최윤, 「희색 눈사람」

30.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T2)

- ①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면의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② 지문에 제시된 사건들의 발생 시간은 다 다르다. 먼저는 인쇄소를 찾아갔던 이야기, 그리고 며칠간 누워서 보낸 이야기, 그리고 거리를 헤매던 이야기와 기억을 되살려 원고를 써가는 이야기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 ③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자는 '나'로 동일하다.
- ④ 관찰자 시점에 관한 설명이지만,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⑤ 액자 구조인 것은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액자의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추출하기 어렵다.

31. [출제의도] 외부 자료를 통한 작품 감상(T4)

- ① '나'는 인쇄소의 입구의 서터가 울려진 것을 보자마자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도주하면서 불안에 떠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억압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깨진 유리 문'은 권력의 강제성과 폭력적인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 ②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듯한 '적색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접하는 타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행인이 밀고자로 보일만큼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이라 표현한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거리를 헤매던 '나'의 모습은 서울로 도망쳐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연명하던 시절과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간절한 의욕이 인물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 ④ 폐쇄된 인쇄소의 모습은 더 이상 '나'가 '안'과 함께 책자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나'는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 ⑤ '나'가 원고를 정리하고 새롭게 쓰는 것은 '안'이 하고자 했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에는 '안'의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 '안'의 욕망을 모방해 주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있다.

32.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① ㉔은 '나'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인쇄소 폐쇄로 인해 열쇠를 꽂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는 진술로 보아 책 제작을 완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② 이들은 인쇄소의 서터를 강제로 열고 유리문을 깨뜨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존재들이다. '나'는 이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마치 뒤를 돌아보고 쫓아올 것처럼 '나'의 내면에서 그러지고 있으므로, 이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이름뿐이었고,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 '안'을 비롯한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엔 불충분했다. 신문 기사로는 걱정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한 것이다.
- ④ '나'가 '병이 없는 신열'을 앓았다는 것은 질병이 아닌 '안'에 대한 걱정과 관계성의 결핍 등이 원인이 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나'는 거리를 헤매지만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혼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 하나 남은 청계천의 '현책방'만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책방의 주인이 바뀌어있는 것을 보고 '나'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 독서 - 인문 ]

[33~36] 삼단 논증 추론 과정의 오류

분위기 이론	
원인	결과
부정전제 존재	부정결론 ↑
부정전제 부재	부정결론 ↓
특징전제 존재	특징결론 ↑
특징전제 부재	특징결론 ↓

믿음 편향	
원인	결과
결론이 믿을 만함	~논리적 규칙 적용
~결론이 믿을 만함	논리적 규칙 적용

33.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으로 분위기 이론, 심적 모형 이론, 명제의 잘못된 환위, 믿음 편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적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음.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인지 오류 이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인간의 인지적 특성(여러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기꺼이 버리는 사고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지 오류에 대한 여러 연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들에 대한 소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삼단논법에서 반례란 모든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로 정의된다. 결론인 (사각형∩윤곽)이 부정되면 (사각형→~윤곽)이 된다. 따라서 ㉔은 반례이므로 (사각형→음영)이고 (음영∩윤곽)이면서 (사각형→~윤곽)인 경우를 찾아야 한다.

- ① 그림의 두 번째 사각형에 음영이 없으므로 첫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 ② 모든 사각형에 음영이 있고, 음영이 있으면서 윤곽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면서 모든 사각형에 윤곽이 없다.
- ③ 음영이 없는 사각형이 있으므로 첫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 ④ 음영이 없는 원에 윤곽이 있으므로 두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 ⑤ 마찬가지로 음영이 없는 원에 윤곽이 있으므로 두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35.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① ㉔에서 "믿을 만하면 그제가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믿음 편향이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
- ③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믿음 편향이 자주 일어난다는 내용은 ㉔와 ㉕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
- ④ ㉕에서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하다고 해서 믿음 편향 효과가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
-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내용은 ㉔와 ㉕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36.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 ① 오류의 원인 중 명제의 잘못된 환위를 설명하는 부분에 명제를 환위할 경우 뜻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㉔번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심적 모형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잘못된 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③ 분위기 이론에서는 전제 중 하나라도 특징이면 특징 결론, 하나라도 부정이면 부정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기>의 전제에 특징과 부정이 있으므로 분위기 이론에서는 결론의 특징 부정이 반드시 도출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파악할 것이다.
- ④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가 아니라는 믿음 편향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라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 ⑤ 분위기 이론에서는 특징이 하나라도 있으면 특징 결론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두 전제의 전칭, 특징을 바꾸더라도 특징이 하나인 것은 유지되므로 원인이 동일할 때 원인에 따라 바뀌는 결과도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 문학 - 신유형 ]

[37~42] (고전 소설) (가) 김일렬, 「고전 소설에 나타난 기이성 연구」 / (나) 작자 미상, 「금형전」 / (다) 작자 미상, 「심청전」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T1)

- ① 19세기에 판소리계 소설은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하였다.
- ② 17세기의 초기 소설에 해당하는 불교계 국문 소설과 전기 소설에서는 비현실성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현실 세계의 논리가 중요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18세기에 소설의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원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가)의 글쓴이는 그 대표적인 예로 적강형 영웅 소설을 들고 있다.
- ④ (가)의 첫 문장에서, 고전 소설에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기이성이 자주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⑤ 18세기에 이르러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비현실성이 희석, 즉 약화되었다.

38.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작품에 적용하기(T2)

- ① 사람이 아닌 금령이 길을 안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기이성을 띤 부분이라 볼 수 있다.
- ② 요귀의 존재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요귀를 무찌르는 것은 기이성을 띤 비현실적 장면이다.
- ③ 꽃봉우리 안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기이성을 띤고 있다.
- ④ 수궁의 존재는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심 소제가 수궁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이성을 띤다.

⑤ 이국정취가 기이성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심 소저의 성격 변화는 (다)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심 소저가 중국 천자의 배필이 된 것은 천자가 우연히 심 소저 일행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39.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작품에 적용하기(T2)

- ① 뱃사람들의 위로는 환상계에 있는 심 소저를 향한 일방적인 것이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존재의 교감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감의 계기로 볼 수 없다.
- ②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계의 질서 속에 현실계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둘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 ③ 이승과 저승이 다르다는 심 소저의 말은 두 공간이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심 소저는 환상계에 해당하는 저승에서 현실계인 이승으로 돌아왔으므로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에 따르면, 환상계와 현실계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따라서 두 공간이 대등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환상계에서 옥황상제의 명령이 현실계에서 심 소저가 천자와 만날 수 있게 하였으므로,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비교와 감상(T1)

- ① [A]는 해룡의 옥판과는 관계가 없다. [B] 역시 사해용왕과 심 소저 모두 옥황상제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는다.
- ② [A]는 해룡이 요괴와 공주가 존재하는 천상계로 가도록 이끌었다. [B]는 심 소저가 현실계로 돌아가 천자와 만날 수 있게 하였다.
- ③ 해룡은 (나)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지 않는다.
- ④ [A]는 해룡이 운명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룡이 금령을 구하려 가는 것이 본인의 운명임을 수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나)에서 해룡이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41. [출제의도] 외부 자료를 통한 작품 이해(T4)

- ① (나)에서 해룡이 간 천상계에는 요괴, 수십 명의 여자와 공주가 있었다. 요괴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유지된 것이다.
- ② 해룡을 배신하는 인물은 (나)에 드러나지 않는다.
- ③ 해룡은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금령이 들어간 골짜기로 뛰어들었다. 바구니를 타고 요괴가 있는 천상계로 간 것은 아니다.
- ④ 해룡이 어찌할 줄 모르는 와중에 구름 속에서 초현실적 존재인 산신령이 큰 소리를 내어 그를 요괴의 거처로 이끌었다.
- ⑤ 해룡은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요괴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금령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다. 공주가 그 곳에 있다는 것은 요괴를 무찌르고 나서야 알았다.

42.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해석하기(T4)

- ① 해룡에게 적대적인 요괴의 등장을 '벽력같은 소리', '주홍 같은 입'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② '홀연 천지가 명랑~'이라는 표현을 통해 갑자기 변화된 주변 상황을 드러내고 비석을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꽃봉의 조물적 특성을 바람과 비의 외부적 영향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용녀'는 사람의 기척을 느끼자 도로 꽃봉 안으로 들어간다. 이는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주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천자와 '용녀'의 관계는 천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 ⑤ 서술자는 직접 작품에 개입하여 명령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위엄있는 태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문학 - 현대시 ]

[43~45] (가) 김광균, '노신' / (나)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43.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T2)

- ① (가)에서는 마지막 부분의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담배를 피워 문다', '속삭어린다'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담담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가 지배적 정서이지, 역동적인 것은 느낄 수 없다. (나)에서는 마지막 부분의 유사한 시구의 반복은 있으나 점층법의 기법을 사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한편, (나)의 시적 대상인 '새'들의 역동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 그리고 바다와 눈보라를 건너 오기 위해 날갯짓 한 여정을 생각하는 시구를 통해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의성어의 활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또한 생동감 있게 묘사된 시적 대상을 찾기 어렵다. '등불'의 경우, 생동감이 라기보다는 화자의 정서가 이입되어 쓸쓸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카랑카랑' 같은 의성어를 통해 새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와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와 같이 변주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도 '더 추워야겠다'와 '한껏 가난

해져야겠다'와 같이 유사한 시구를 변주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은 (가)와 (나) 모두 나타나 있으나, 두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이 없으므로 '반어적 표현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에서는 여정의 따른 공간이 이동이 아닌, 생각의 흐름에 따라 잠시 '상해'로 공간이 이동했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는 일정하게 자기 반성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에서는 시적 대상인 '새'가 건너왔을 공간인 '바다'를 추측하고는 있으나, 이를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라 하기는 어렵다. 시의 공간적 배경은 '운암담'으로 일정하며, 화자의 정서 또한 시종일관적이다.

44. [출제의도] 외부 자료를 통해 작품 감상(T4)

- 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표현에서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고뇌하던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② 잠든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개에 밤눈이 내려쬐인다는 표현은 생활을 무겁고 차갑게 만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빗대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문학적 성취'는 '노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아직 시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성취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시인은 노신의 성취가 아닌, '혼탁한 시대에 홀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닮고 싶은 것이다.
- ③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이 '돌팔매'는 현실이 반영되어 시인이 현실에 대해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화자와 그가 떠올린 '노신'은 화자가 낀 '등불'과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의 관계처럼 서로 겹쳐지고 있다.
- ⑤ 시인은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었지만, '노신'을 떠올리며 '노신'의 삶의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굳세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시를 마무리한다.

4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T1)

- ① [A]에서 화자는 '청둥오리떼'를 보고,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어떻게 '살얼음을 극복했는지' 생각하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 인식의 방해가 된다고 여긴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비상을 위해 버 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이라는 표현으로 화자는 새들이 '바다와 눈보라'를 건너가기위해 들인 치열한 노력을 묘사하고 있다.
- ④ ③ 선지의 설명처럼, 새들이 가난을 무릅쓰고 자신을 비워가며 '바다와 눈보라'를 극복했는데, 화자 자신의 삶은 '무거운' 상태이고 또 '속된' 그리움이 못 박혀 있다는 점을 느끼고는 반성하고 있다.
- ⑤ '겨울새들의 행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한 화자는 그들과 같이 추워지고 가난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 이원준 칼럼 ●  
18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

1. <보기>의 그림 관련

본 문제의 지문에서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므로 18번 그림과 같은 “유일한”(=독점)인 경우 이부가격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즉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통신사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18번 문제 <보기>에는 지문의 <그림>과 달리, 한계 수입 곡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1), (2)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1) 수요곡선이 한계수입곡선과 같은 경우

이 경우라면 18번 <보기>의 가격 P와 통화량 Q는 독점통신사가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한 가격과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같다는 가정은 지문의 그림과 설명을 고려할 때 매우 무리한 가정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계수입곡선이 생략된 경우

이 경우라면 지문의 이부가격설정과 연결지어 P와 Q점은 “독점 시장에서 기본요금(이부가격)이 설정된 다음의 생산량과 가격”인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설명에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보기>의 그림(부과 후)과 설명의 시제(부과 전)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우려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기>에서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통화료가 P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의 생산량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한계 비용과 수요’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결 : (1)이 워낙 무리한 가정이기 때문에 (2)의 해석이 적절합니다.

2. 선지 관련

한계수입곡선이 생략된 것으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선지 ①의 경우 지문의 설명대로 한다면,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E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지문에서 언급한 대로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독점생산자의 생산자 잉여는 최대 baE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다리꼴 OaEQ에 해당한다고 한 선지 ①도 틀린 선지이긴 하지만, 이를 PbE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해석도 소비자 잉여의 흡수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의 경우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설은 가격이 P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가격이므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서 독점 시장에서 기본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통화료)도 P보다 높은 Pm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 ⑤의 경우도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고, 가격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의 해설도 독점 시장에서 기본 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통화료를 P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3. 결론

선지 ①이 틀린 선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지 ④, ⑤도 틀린 선지이므로 결국 18번 문제의 정답은 세 개입니다. 또한 교육청이 제시한 해설은 ①,④,⑤가 모두 부적절합니다.